

20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를 다녀와서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를 유명하다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가슴 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열망이었다. 세계적인 문화 괴테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책의 향연!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쇄매체의 위기를 거론할 때마다, 이 유서 깊은 도서전은 종이책이 지닌 아날로그적 매력과 그 오랜 생명력을 믿어온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희망의 증거가 되어 준 것이다.

세계 최대 책의 향연

2007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열린 지난 5일간(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를 유명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 막을 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화'라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텍스트의 만남이라 할 수 있겠다. 책은 지구촌 인류의 지성과 문화의 총체이다. 그러한 총체를 담은 본질이자, 도구이다. 다행스럽게도, 당대의 책은 이러한 본질과 도구적 측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그 사이에서 묘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디지털 시대의 위기감을 넘어서, 디지털을 도구화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책이 지닌 아날로그적 매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고의 참가종 7448 업체 · 전시종 39만 1652권 기록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의 향연장이자, 세계 도서저작권의 30% 가량이 사고 팔리는 최대의 저작권 거래

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교류의 장이자, 선의의 경쟁시장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책 '국력'

국제도서전에 가면 무엇보다도, 그 스케일에 압도된다. 매년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상설 전시관은 우리나라 박람회장의 10여 배에 달하는 규모로 1관부터 8관까지 나라별 혹은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시장 간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정도다. 전시회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다닌다 해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둘러보기란 녹록찮은 일이다. 도서전의 질적 수준 또한 스케일에 못잖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방음이 이어지고 이와 같은 작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한 출판 관련 이벤트가 2500여 가지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 등 수천, 수만 유로에 달하는 문화재품의 진귀한 고서들을 전시하는가 하면, 작가와의 만남, 이야기 낭독, 대담, 인터뷰 등 각종 이벤트와 생방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어 지성의 향연이 벌어진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야말로 세계 최

고·최대의 국제도서전임을 인정하는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만한다.

'책은 곧 국력'이라는 명언은, 이곳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 110여개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지만, 3%의 대형출판사들이 80% 이상의 책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세계 3%, 미국의 대형 출판업체나 유럽권의 유서 깊은 출판사에서 내놓는 책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책이다. 일부에서는 도서전시회가 대형출판사들의 힘에 눌려 작은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한 손바닥 안의 일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움직이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언어 장벽 뚫어 넘은 한국

그러한 세계 출판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출판계, 그리고 불교서적의 위상을 돌아보게 된다. 8000여 개에 육박하는 부스 가운데

한국, 그리고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미미하다. 국내 서점에는 깊이 있는 불교입문서와 연구서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지만, 제대로 번역된 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세계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번역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번역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한 번역의 한계, 더불어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진취적인 불교서적의 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는 인류를 '고(苦)'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와 희망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교를 작은 틀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켜볼 일이다. 앞으로 불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불교 입문서, 나아가 불법의 정수를 담아낸 좋은 책들이 더욱 많이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런 양서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개구려가 없는 작은 우물 안에 파문을 일으키고, 저 넓고도 깊은 책의 바다 속을 힘껏 유명하기를!

정혜영 <한미음저널 부편집장>

불교방송 프로그램 '행복한 미소' 책으로

미소로 모두에게 행복 전달



행복한 미소

성전 스님 지음
개미 펄스 | 1만원

악수를 합니다. 악수는 그냥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악수는 마음까지도 내미는 것입니다.

내민 손에 마음까지 들쭉 잡아 내밀 때 진정한 악수가 됩니다. 악수를 하며 손을 잡는다는 것은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함께 하자는 행동의 신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악수는 그 각자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 손을 잡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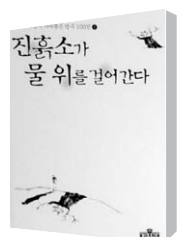
내가 그대 곁에 있다고 일깨우는 일입니다. <후략>

오전 9시 5분부터 11시까지 불교방송을 켜면 성전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미소 스님'으로 통한다.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미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전 스님은 늘 미소를 띠고 산다.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이라는 다리를 놓는 불사를 하는 동안 스님은 스스로 '미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행복한 미소>는 성전 스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이름이다. 라디오를 진행하며 매일 청취자들에게 보내는 '오늘의 발원'을 추려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책을 낼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가끔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스튜디오로 찾아와 '오늘의 발원'을 책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해 책을 낼 생각을 냈다고 한다.

매일 하나의 발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발원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진정한 불자라면 거창하게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품 잡을 일이 아니다. 그저 한 번의 미소를 지을 줄 알고 그 미소로 자신이 행복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힘, 그것이 진정한 불자의 살림살이다. 성전 스님은 행복, 사랑, 그리움, 인연, 인생, 깨달음 등 6가지의 주제를 통해 참다운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임연태 기자**

불교에 다시 눈 뜨면서 경전 어록 보며 명구 기록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무비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펴냄
각권 9000원 | 4권 1세트 3만5000원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이 완결됐다. 지난해 봄 첫 출간된 1권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를 시작으로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총 4권이 2년여의 작업 끝에 마무리됐다.

무비 스님은 '십대시절 불국사 말사신 영덕 덕흥사에 있을 때 때때 동자승이 일러준 '삼십수심 천재보(三日修心 千載寶)'사를 뒤은 마음

은 천 년의 보배요, 백년 탐물 일조진(百年食物 一朝塵)한평생 탐해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라는 <초발심자경문>의 구절을 듣고 감동해 출가를 하게 됐다'며 '촌철살인의 명구 하나가 큰 감동을 주기에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5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교에 대한 눈을 다시 뜨면서 경전 어록을 보며 명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스님은 입체 스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한다. 스님이 최고로 여기는 명구는 '수처자주 입체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내가 있는 이곳 이 순간이 진실한 행복이기에 철저히 살고 철저히 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지연 기자

미안마 사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란' 질문

책 곳곳 '알아차림'으로 인한 즐거움 설파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묘원 지음
행복한 숲 펄스 | 1만원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알아차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해탈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위빠사나선원 원장 묘원 스님이 한국위빠사나선원 인터넷 카페의 응답샘 코너에 올린 글을 모아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을 엮었다. "모든 것이 괴로움뿐이어서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소멸된다"며 묘원 스님은 '알아

차림'을 강조한다.

'화'가 많은 현대인에게 전하는 글도 있다. '먼저 화를 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화를 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 뒤 가슴에서 화로 인해 생긴 느낌을 주시한다. 가슴의 고통을 확인하게 되면 언젠가는 화를 내지 않는다."

스님은 책 곳곳에서 '알아차림'으로 인한 즐거움을 설파한다. 돈, 교육, 사랑과 죽음, 화려함, 성공 등 현대인들이 바라고 고뇌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림'으로 이끌어내는 스님의 잔잔한 계승들을 읽다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진다. 책 곳곳을 메우고 있는 수행의 나라 미안마를 담은 사진들과 함께 '진정한 자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잔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3	언젠가 이 세상을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절을 가져야 할까	청건	붓다의 마을
6	하루 108배 내공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7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8	부처님과 보살 제미있는 이름 이야기	김윤수	민족사
9	생명의 고향, 마음지리도 돌아가는 기림	청화	상상예찬
10	산뜻이 이야기	정묵	바움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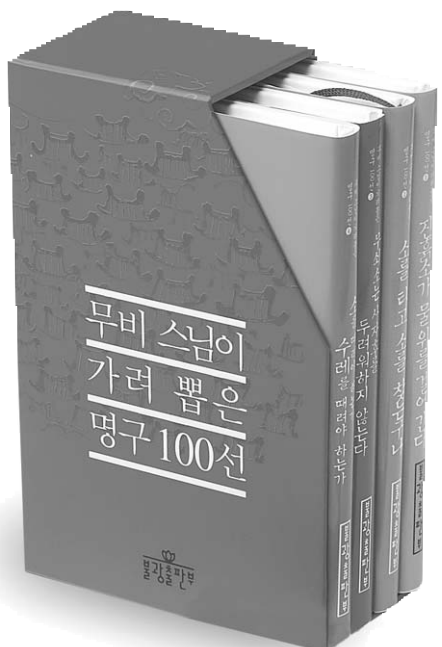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4권 1세트

깊어가는 가을,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명구, 명쾌한 해설-한편 한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일상생활 틈틈이 이 작은 책을 거울 삼아 어지러운 마음을 비추고, 그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새김질해보라.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다.



● 4×6판 양장본 | 각권 값 9,000원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제1권 * 진흙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제2권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제3권 *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4권 *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새불교, 새물결의 기수-월간 「불광」 33주년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순수불교에 입각한 참된 생명가치의 자각을 기치로 내걸고 현대적인 포교의 의지로 창간되었습니다.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는 동안, 월간 「불광」은 33년 동안 한 호도 거름없이 든든하게 불자 여러분 곁을 지키며 불교를 대표하는 잡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중화·현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교잡지가 창간과 폐간을 거듭하는 동안, 월간 「불광」은 33년 동안 한 호도 거름없이 든든하게 불자 여러분 곁을 지키며 불교를 대표하는 잡지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세제불과 여러 독자님들의 가호와 격려를 바라며 33년의 역사를 딛고 다시 50년,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활기찬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Here & Now”, 무한 행복 질주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복 팍팍!